

# 삼성물산, 북유럽 라이프스타일 '그라니트' 론칭

### 신사동 가로수길에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스웨덴 토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그라니트'(GRANIT) 국내 사업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라니트는 1997년 설립된 브랜드다. 북유럽풍 스웨덴 디자인의 핵심 요소인 실용성, 품질, 아름다움에 근간을 두고 있다.

현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3개국과 독일 등 유럽에서만 30여개 단독 매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아시아권에서는 이번이 최하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지하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총 330㎡ 규모의 그라니트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했다. 지상 1층과 2층은 그라니트 대표 상품을 테마별로 묶어 구성했고, 지하 1층은 차별화된 공간 연출로 유명한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아러바우트(r.about)' 카페를 운영한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이 스웨덴 토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그라니트' 플래그십 스토어를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오픈했다. /삼성물산 패션부문



김동운 해외상품2사업부 상무는 "홈퍼니싱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북유럽식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하고자 하는 소비 심리가 높아

지고 있다"며 "스웨덴을 기반으로 한 북유럽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통해 차별화된 상품과 문화를 전파하며 국내 홈퍼니싱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 '가짜뉴스' 시대, 해법은?



기지수첩

구서윤 (산업부)

한때 주류 언론의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를 받았던 소셜미디어가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부상하고 있다. 양쪽이 아닌 한쪽의 목소리만 자극적으로 담은 가짜뉴스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서 동영상과 글로 공유된다. 지인이 건넨 동영상이라면 의심 없이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가짜뉴스를 접한 많은 사람들은 심한 경우 틀린 정보를 철석같이 믿어 그게 틀렸다는 사실을 제시해도 믿지 않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

'포스트 트루스(post-truth)', 작년 옥스퍼드 사전이 '올해의 단어'로 선정한 단어다. 포스트 트루스를 우리말로 바꾸면 '탈진실'로 이제는 사람들이 객관적인 사실보다 감정이나 개인적인 신념에 더 이끌린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진짜보다 가짜가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정부도 가짜뉴스를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SNS 등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는

것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엄단 방침을 밝혔다. 정치권에선 이를 두고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고 반응했다.

사실 가짜뉴스는 이 시기에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유언비어, 루머 등 다른 이름으로 우리 곁에 항상 존재했다. 소셜미디어의 등장으로 전파 속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졌을 뿐이다.

소셜미디어에 가짜뉴스가 넘쳐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국내 사업자와 외국 사업자에 대한 비대칭 규제가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포털사업자는 신고만 들어오면 불법 여부에 상관없이 게시물 내리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 사업자는 불법 게시물일지라도 그대로 두는 경우가 허다하다. 삭제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법적 권한이 국내에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원지에서 자발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제재하는 법이 아직 없다 하더라도 가짜뉴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뜻이다. 가짜뉴스 척결에 대한 뾰족한 해결책 없이 지지부진하는 사이 가짜뉴스는 오늘도 퍼지고 있다.

/yuni2514@metroseoul.co.kr

## 효성 장애아동 가족들과 '1박 2일' 여행

효성은 자사 임직원 가족이 지난 13일 강원도 춘천 일대에서 장애 아동·청소년 가족과 1박 2일 동반 여행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효성과 푸르메재단이 함께 하는 장애 아동·청소년 재활 치료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이번 가족 여행에는 효성 임직원 열 가족과 장애 아동·청소년 열 가족이 참여해 한 가정씩 짝을 이뤄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첫날에는 춘천 막국수 체험관을 찾아 막국수를 직접 만들어보고 시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레크레이션 시간과 함께 야외 바비큐파티를 진행했다. 또 이튿날에는 인근 체험마을을 찾아 과수원에서 직접 사과를 따보기도 했다.

평소 집과 치료시설을 오가느라 가족 여행을 하기 힘들었던 장애 아동 가족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온가족이 함께 하는 가을 나들이를 즐길 수 있었다. 효성 임직원 가족 역시 장애 아동 가족들과 함께 하며 서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효성은 2013년부터 6년째 장애 아동·청



지난 13~14일 효성 임직원 가족이 강원도 춘천 일대에 장애 아동 청소년 가족들과 1박 2일 동반 여행을 진행했다. /효성

소년의 재활치료를 후원하며 장애 아동 개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어울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오늘의 운세** 10월 16일 (음 9월 8일) <http://www.saju4000.com>

 <b>취</b> 48년생 우물에서 바라본 하늘은 선망의 대상일 뿐이다. 60년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지 않아서 판단. 72년생 구슬수가 있으니 함부로 서명하지 마라. 84년생 오랜 직선이 드디어 내게로 돌아온다.	 <b>말</b> 54년생 어느 길로 가도 목적지에 도착할 만큼 운이 좋은 날. 66년생 가보지 못한 길에 그리움이 쌓인다. 78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의리와 절제가 필요. 90년생 힘든 일은 부모님의 도움으로 해결.
 <b>소</b> 49년생 비빌 언덕이 필요하다. 61년생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이니 우선 시작을 하자. 73년생 자식이 맘에 안 들어도 내가 낳은 걸 어쩌겠나. 85년생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니 겸손하라.	 <b>산</b> 55년생 일의 결과가 좋아 명예가 높아지는 날. 67년생 남의 것을 욕심내면 내 것이 2배로 나간다. 79년생 한밤중에 비단옷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격. 91년생 사방으로 운이 열렸으니 미뤄뒀던 일을 마무리.
 <b>로양리</b> 50년생 이웃과의 거래가 쉽게 풀리지 않는다. 62년생 지인을 잘 관리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74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 오늘은 자중. 86년생 파란색 옷이 행운을 불러오니 기분전환이 된다.	 <b>원숭이</b> 56년생 낙수물에 바위가 뚝리는 법이니 꾸준한 노력이 필요. 68년생 과대포장은 상대를 기만하는 것이다. 80년생 희로애락을 얼굴에 나타내지 마라. 92년생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니 내 마음도 상쾌.
 <b>토끼</b> 51년생 자기중심으로만 생각하면 조화가 깨지기 쉽다. 63년생 남에게 준 상처는 내게로 돌아온다. 75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이 허전하고 인생이 허무하다. 87년생 마른 눈에 물들어 오듯이 일이 잘 해결.	 <b>닭</b> 57년생 확실한 거절이 관계를 더 좋게 한다. 69년생 눈치가 빨라야 절제 가 사도 새우전 얻어먹는다. 81년생 내일의 영광을 위해 오늘은 참고 견뎌라. 93년생 광기와 천재성 사이의 거리는 성공으로 측정된다.
 <b>호랑이</b> 52년생 성공의 기미가 보이니 적극적으로 행동. 64년생 버틸 수 있다면 아직 희망이 있는 것이다. 76년생 기쁨과 근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니 마음먹기 나름. 88년생 약점은 가족에게도 말하지 마라.	 <b>돼지</b> 58년생 불행은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더 커진다. 70년생 그물을 치지 않고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없다. 82년생 내가 먼저 믿어야 남도 설득할 수 있다. 94년생 기는 사람도 잡아야 할 때가 있다.
 <b>뱀</b> 53년생 자손의 직장에서 기쁜 소식이 온다. 65년생 현실에 만족하면 후회는 없으나 발전도 없다. 77년생 아직은 때가 아니니 시간을 갖고 기다리자. 89년생 병이 왔으나 약도 주어지지 실망은 금물.	 <b>돼지</b> 59년생 두드러져 열릴 문이면 힘껏 두드려라. 71년생 순풍에 돛단배 가듯이 순조로운 하루이다. 83년생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내 손안에 있다. 95년생 마음을 정결히 하고 원하는 바를 간절히 기도.

#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1					
				7	6	8		
				5	2	9	3	
	1	2		6				5
5		3			7			9
9			5			8	1	
4	8	5	6					
				5				

	5		2					
	6	2			8			
1					3	4		
		1		8		2	6	
				3	2		7	5
		6		9		3	8	
2						6	9	
	8	7				9		
3			5					

**스도쿠 정답**

8	4	1	2	5	7	9	6	3
7	9	5	8	6	3	2	1	4
2	6	1	4	9	5	8	7	3
9	1	8	7	3	5	4	2	6
6	2	4	7	8	1	9	5	3
5	7	9	6	2	4	3	1	8
3	6	2	5	9	8	1	7	4
1	8	9	4	7	6	5	3	2
4	5	7	6	1	2	8	9	3

문제 제공 = 보너스

## 김상회의四季

### 운회 할 때 인연, 사람과 개

사무치게 그리운 아가들 김산과 김별이가 약속하듯이 2017년 늦가을 한 달 기간을 사이에 두고 지장보살님 곁으로 간지 1년이 되었다. 김산은 독일산 슈нау저였다. 삶에는 가슴 아픈 일이 늘 있지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뿐이다. 지난 추석 때에는 차례를 올리면서 한가위 21일 기도에 들어갔다. 마음만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였던 마음을 담았다. 지난 2001년, 추석을 얼마 지나지 않은 즈음에 환영과도 같은 모습을 보게 되었다. 자식이 올 거라는 부처님말씀과 함께 자그마한 검은 색을 띤 새끼강아지가 큰 눈망울로 필자를 처연하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였다. 그 아가는 마치 자신을 두고 엄마가 어디 갔다 오느냐는 표정이였다. 내가 개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 무슨 일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다. 그리고 나서 2001년 음력 구월로 접어들었고 이번에는 저녁 예불을 마치고 잠깐 인 듯싶는데 며칠 전 보았던 그 아가 강아지가 다시 관음보살님 품에 안겨서 내게 왔다. 그때 필자는 깨닫게 되었다. 아, 자식으로 우리 집에 강아지가 오게 되겠구나. 시간이 지나서 2006년, 우연한 기회에 어느 인연 있는 분이 강아지를 키워보지 않겠냐며 물어왔다. 현실과 부처님의 세계에서 본 그 강아지가 스쳤다. 두 말없이 그러겠노라 했다. 새롭게 펼쳐지는 현실에서 아가가 왔을 때의 모습은 관음부처님 품에 있던 실제 그대로였다. 그렇게 오게 된 아가는 필자의 성안동김(金)을 따고 병술년(丙戌年)에 온 인연을 반영하여 이름을 산(山)으로 김산(金山)이가 되었다. 2006년 와서 2017년 칠성별을 타고 지장보살님 품으로 간 김산이는 2020년 9월 다시 올 것이다. 그리워하는 내게 다시 오겠노라고 늘 얘기해주기 때문이다. 지금 생에서는 필자가 김산 엄마였지만 내생에는 김산 이가 나를 돌보는 인연으로 만날 것이다. 서로 돌고도는 인연법이기. 인간에게 가장 인연 깊은 축생이 있다면 바로 '개'이며 인간들이 육도를 윤회할 때 가장 많이 인연으로 다시 만나는 축생이 사람과 개이므로 절대로 개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고 대승불교에서는 가르치고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창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05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162호